

### 오역 줄인 방대한 한글 법화경

요련스님 편역 '법화삼부경'



법화행자로 평생 법화경 수행에 매진하다 지난 98년 입적한 요련스님(사진)이 편역한 <법화삼부경> (간경도감)이 입적 3년 만에 출간됐다. 이 책은 속가 동생인 장성 묘현사 주지 묘각 스님(간경도감 대표)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0년 만에 출간한 것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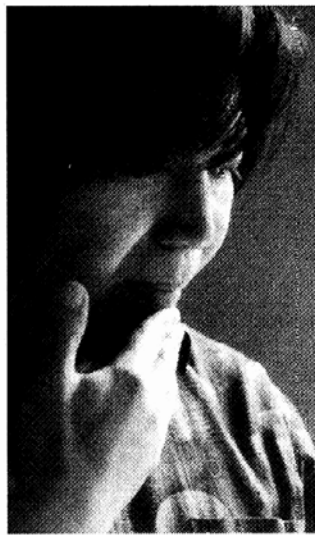
4·6배 판 2,000쪽,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무량외경> <묘법연화경> <관보현보살행법경>에 대한 그간의 오역을 세밀하게 바로 잡은 <법화삼부경> 한글번역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종(品)마다 관련 불화를 곁들여 경에 나오는 장면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천태종의 개조인 북제 혜문 존자로부터 천태종의 2조인 남악 혜사(515-577) 대사, 중국 진·수나라 때의 천태 지자(538-597) 대사, 천태 지자의 제자인 장안 관정(561-632) 대사, 당나라 때의 형제 담연 묘락(711-782) 대사, 고려 광종 때의 제관(950-975) 법사, 천태종의 중흥조인 고려의 의천(1055-1101) 대각국사, 일본 일련종의 개조인 일련(1222-1282) 대사에 이르기까지 천태종의 주요 조사들의 진영과 요련 스님의 법화경관도 실고 있다. 값 10만원.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 화두 들면 生 놓으면 死

'손가락 열두마디' 백금남 지음



작가 백금남 씨가 장편 소설 <손가락 열두마디>(전 2권, 자유문학사를 펴냈다. 1985년 삼성문예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온 백 씨는 그동안 <탄트라>, <천상의 약속>, <출가> 등을 펴내며 불법을 통한 삶의 진리 탐구 등 불교의 핵심사상들을 소설로 형상화시켜 왔다. 그런 백 씨가 이번에는 구도소설로 독자들을 찾았다. 이 소설은 '나'라는 1인칭으로 얘기를 이끌어 가는 한 선사의 수행기다.

'나'는 아침부터 제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한다. 열반송을 쓰기 위해서다. 하지만 '나'는 열반송 한 줄도 쓰지 못한 채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

일가족 41명 출가화제  
치열한 구도의 삶 소설로  
"집착 버리면 행복 보여"

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 소설은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수행자가 열반송을 쓰려는 대목으로 시작한다. 4대에 걸쳐 41명의 가족이 수행자가 된 과정에서 태어난 '나'는 14살 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원효 스님의 말을 듣고 출가한다. 29살의 어느 날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출세, 명예, 행복 등을 버리기 위해 손가락 열두마디를 붙여 태운다. 그리고 태백산 도솔암으로 떠나 6년 간 무문관 수행을 한다. 그 결과 타다 남은 조막손에서 생신사리가 나오는 이적을 본다. 하지만 '나'는 이를 거두지 않고 모두 을 밖으로 버린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원효, 보우, 경허, 만공 스님을 비롯해 성철 스님 등의 가르침을 우러르며 삶의 해답을 구한다. "지금까지 고승들의 열반송을 수없이 접해왔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비합리적인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다. ... 무위자연의 상태, 그

것이 무방(無方)의 경지이다. 나는 지금 열반송을 지으려 하지만 그 경지를 모르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열반송을 쓰기 위해 붓을 든 '나'는 속 마음과는 달리 거짓으로 꾸민 수행자의 가식은 물론 열반송을 쓰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독자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내가 지금까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모든 마음의 작용이 다해버린 경지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경지에 들면 어둠과 밝음이 없는 것인지는 체득해 보지 않아 모르겠고, 그래서 뼈가 저릴 지경이다."

철저한 계행으로 한평생을 수행한 '나'가 열반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되돌아본 수행체적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리고 상념에만 머물고 있을 시간이 없음을 알게 된 '나'는 지금까지 기차가 달려오는 레일 위에 서 있었지만 화두를 잡고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깨닫는다. 화두를 잡고 있으면 생의 길에 있고 화두를 놓으면 죽음의 길에 서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는 다짐한다.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진솔하게 쓰자며 열반송을 마친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주인공은 눈을 감는다.

주인공의 범행은 끝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는 주인공의 말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는 집착에 빠지는 순간 이 소설을 읽는 것은 무소유가 되고 말 것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이책의 한구절

■ "잠시 자리에 붙어 있는 동인의 영화를 위하여 그릇된 마음으로 설치다가 북망산천으로 돌아가는 날의 고통을 무엇으로 모면할 것인가. 선심은 극락이요 탐심은 지옥이다. 물이 많으면 달이 나타나듯이 마음에 탐심 번뇌가 없어지면 마음 부처가 나타난다."

-북담 스님 법어집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밀알), 값 7천5백원.

■ "부처가 되고 싶거든 만물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이 상하면 여러 가지 존재한 것이 상하고 마음이 열하면 여러 가지 존재한 것이 열한다.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모든 존재한 것이 허물이 없다고 했다. 세간에 있어서나 출세간에 있어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현전하지도 않고 또한 잃어버릴 일도 없다."

-서용 스님 법어집 <절대 현재의 참사람> (불교영상), 값 5천원.

### 선심은 극락이요 탐심은 지옥 부처도 법도 없으니 잃을게 없어

■ "세간의 인락도 출세간의 해탈도 근원을 찾아가면 결국 계율이라는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만일 계율을 저버린다면 세간의 행복과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모름지기 불자들은 계율이 모든 공덕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일타 스님 법어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연학원연구원 역음, 불교시대사), 값 1만원.

■ "몸이 청정해야 마음이 청정해진다. 청정은 성품을 참고 항상 자비를 베풀며 어려서도 않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가운데 갖는다. 일심이 청정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해지고, 일심이 청정하면 청정한 정토로 회향이 함께 한다."

-법성 스님 법어집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깨달음을 이룬다> (지혜의 나무), 값 8천원.

■ "무슨 일을 하든 놓는 마음으로 하라.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를,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자 아난차 스님 법어집 <고요한 숲 속의 연못> (책 콘필드 폴 브라이터 역음, 김열권 옮김, 고요한 소리), 값 5천원.

### 유식불교의 궁극은 일심

유식무경



'유식무경(唯識無境)', 제목부터 의미 심장한 책이 나왔다. 유식무경은 대승불교 유식의 기본 관념으로 일종의 유식사상을 말한다. 신간 <유식무경(唯識無境)> (한자경 지음, 예문서원은 유식에 있어서의 식(識)과 경(境)이 무엇을 의미하여 또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유식의 대표적 이론서인 <성유식론>을 바탕으로 탐구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유식불교의 논리가 서양 관념론의 형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논리를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칸트를 비롯해 서양 관념론자들의 이론과 맞물려 설명하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 삶과 직결돼야 진정한 불교

'생활 속의 불교' 권기종 지음



'알고 실천하는 생활 속의 불교'에서는 종교로서의 불교를 재조명하고, 불교 수행을 비롯하여 삶 속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일러준다. '불교로 풀이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서는 안락사, 장기이식, 생명복제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부처님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대승불교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에서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면서 보살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 속의 한국불교를 생각하며'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승가의 역할 등을 제안한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40여 년을 불교학과 더불어 살아온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불자들에게 내놓았다. <생활 속의 불교> (승)는 책 제목이 말해 주듯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바른 수행의 길을 자상하게 열어 보이고 있다.

권 교수는 "불교를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고 말한다. 인간의 삶과 관계없는 불교는 가르침의 내용이 아무리 심오하고 뛰어나더라도 불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불교의 가르침은 불자들의 삶과 직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연결된 삶

과 생활이 곧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글쓴이는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불자라고 자처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대중에게 가르쳐 주는 스승인가, 중생들의 행복과 불행에 주관하는 존재인가, 불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바른 수행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삶과 동떨어진 지식으로만 아는 불교가 아니라 삶 자체가 불교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크게 4부론으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 사람답게 사는게 구도의 길

김종철 시집 '등신불 시편'



시인 김종철 씨가 중국 화산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 설화를 모티브로 한 시집 <등신불 시편> (문학수첩을 펴냈다. '등신불 시편', '산중문답 시편' 등 연작으로 이뤄진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정의 부정으로서 더 큰 긍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불교적 변증법과 뒤집어보기라는 역설에 의해 진실과 진리에 이르려는 끊임없는 존재의 성찰을 보여준다. 김 시인은 시집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시 '오도송'에서 결국 삶이란 줄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며,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며, 순례의 역정임을 노래하고 있다. 값 5천5백원. 이은자 기자(elee@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시아름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디스텔북
2	선의 내침반	송 산	열림원
3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권	불타의마음
5	만행-허버트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6	한국의 불교의례	정 각	은주사
7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원	경각각
8	선의 역사와 사상	성 본	불교시대사
9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림
10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공양

도서 안내: (02)737-0695

##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철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학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 참회·참회·참회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관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반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扉를 열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4x6판 / 값 3,500원

- Ⅰ 업장과 참회
-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 Ⅲ 절을 통한 참회
- Ⅳ 참회법
-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 Ⅵ 이참회법과 대승유점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살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